



東國大同定會報

발행인 : 전영화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18년 (불기 2562년) 9월 1일 (토)

<http://dongguk.info>

제245호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서울과 경주캠퍼스 재학생 5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순표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회 임원, 한보광 총장과 장학생들이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힘내라 후배들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동국장학회 2018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 52명에 1억4백만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전순표)는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으로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52명에게 각 2백만원씩 총 1억4백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8월21일 오전 11시 모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려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지정장학금 2명을 포함해 모두35명에게 7천만원이 지급됐다.

이날 행사는 전순표 동국장학회 이사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모교 총장 보

광스님, 동국장학회 이사 홍파스님 법타스님 박대신 민홍기 김오현 문선배 동문, 감사 김진억 최대식 동문과 모교 이관제 대외부총장 등 학교측 관계자 및 장학금 수혜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전순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장학금은 30만 동문의 얼과 염원이 담겨 있다”면서 “후배 여러분은 열정과 집념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에 나와 훌륭한 인재가 되어 모교를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장 보광스님은 “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선배들의 후배사랑, 모교 사랑을 실천하는 귀중한 선물이다. 이러한 소중한 뜻에 화답하기 위해 장학생 여러분은 졸업하면 총동창회 큰 행사 때마다 꼭 참석하고, 진심이 담긴 감사편지로 선배님들을 감동시켜서 장학금이 선순환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정환민 동국장학회 상임이사 겸 총동창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는 전순표 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홍파스님 법타스님 박대신 민홍기 김오현 등 장학회 이사들이 차례로 나서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모교로부터 각 단과대학별 1명씩과 각 지역, 학과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또 정외과동창회(회장=고용규)와 윤미정 상임부회장은 별도로 지정장학금을 기탁해와 이날 함께 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장학생 대표는 감사편지를 모아 전순표 이사장에게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경주캠퍼스 장학금 8월24일 전달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8월24일 전영화 총동창회장,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최규철 前 경주캠퍼스 부총장, 동국장학회 박대신 문선배 이사, 박병훈 前 경주직할동창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장학금은 경주캠퍼스 출신인 문선배(신화종합건설 회장) 동국장학회 이사가 17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총 3천4백만원을 전달했다.

문선배 이사는 인사에서 “후배 여러분들은 받는 즐거움보다 베푸는 풍요로움의 기쁨을 알고 실천하는 동국인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은 “선배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체득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회관입구에 장학회 현판 부착

서울 인사동 소재 총동창회관 입구에 8월1일 (재)동국장학회 사무실 현판이 다시 부착되었다. 이는 7월9일 있었던 동국장학회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의 감사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동국장학회는 1995년 2월21일 전신인 동우장학회로 설립 승인을 받아 동년 7월13일 현판식을 가졌으며, 2009년12월17일 동우장학회가 동국장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판이 내려진 바 있다.

2018 동국인의 밤 … 12월 13일(목) 오후 6시30분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립니다.

동국장학회 사업계획·예산 통과

2018-2차 이사회, 장학사업 활성화 모색

재단법인동국장학회(이사장=전순표)는 8월21일 오전 10시 모교 본관5층 법인임원실에서 2018-2차 이사회를 열어 △제1호 의안-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2호 의안-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제3호 의안-2018년 2학기 장학금 지급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1호 의안인 주요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과 회보 발행 등을 확정하였으며, 예산안은 기본재산 10억원 외 올해 수입 및 지출액을 5억5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제2호 의안은 올해 모금한 장학금을 기부들의 의사에 따라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3호 의안은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 장학생 선발기준,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일정 등을 검토, 승인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장학생 자체 모임

을 결성하여 템플스테이(수련회) 등으로 자부심을 심어 동창회 참여와 릴레이장학금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자 △장학위 원제를 도입하여 외연을 넓히자 △장학 위원제 조항 삽입 등 장학회 정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사회에는 전순표 이사장을 비롯 흥파스님 법타스님 전영화 정환민 박대신 민홍기 김오현 문선배 이사와, 김진억 최대식 감사가 참석했다.

홍파스님 1천만원

장학회 이사 홍파스님(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이 전순표 이사장에게 장학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홍파스님은 2007년 1천만원, 2011년 1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한 바 있다.



▲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100주년 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 전순표 동국장학회 이사장이 장학생 대표로 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재)동국장학회 2018년도 2학기 장학생 명단

■ 서울캠퍼스 단과대학

△불교대=이다현(불교학부3년) △문과대=박준혁(일어일문4) △이과대=이상현(수학3) △법과대=정희원(법학2) △사회과학대=양송이(정치외교2) △경찰사법대=이소희(경찰행정3) △경영대=박상선(경영4) △바이오시스템대=장민혁(식품생명공학3) △공과대=임형석(건설환경공학3) △사범대=인준영(역사교육4) △예술대=홍석준(연극학부3) △약학대=김선영(약학5) △미래융합대=설소희(사회복지상담2)

■ 지부지회 추천

△서울강남=고재웅(법학3) △인천=박진형(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4) △광주전남=정원희(건축학3) △경기수원=신준철(불교학4) △경기용인=김종현(경영학3) △불교학과=이민식(4년) △영어영문학과=정지용(3년) △법학과=정명(2년) △정치외교학과=김지훈(2년) △경찰행정학과=주도현(4년) △경제학과=장설희(2년) △경영학과=강서영(2년) △국제통상학과=이의상(3년) △화학과=이수빈(2년) △바이오환경과학과=강희원(3년) △스포츠문화학과=최원재(2년) △ROTC동문회=김주형(행정4년) 조현호(법학3년) △여자동창회=김재환(경영3) 정채은(경영2)



▲ 장학회 이사 홍파스님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장학회 이사 법타스님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지정장학금

△정치외교학과=이승태(4년) △수학교육과=류재연(3년)

■ 경주캠퍼스 단과대학

△불교문화대=유화석(불교학부1년) △인문대=이승엽(고고미술사3) △과학기술대=김영훈(안전공학3) △사회대=이은용(사회복지3) △상경대=박나은(호텔관광경영3) △사범교육대=염혜진(가정교육3) △한의과대=박상현(한의학3) △의과대=손혜림(간호학1)

■ 지부지회 추천

△직할경주=조혜령(가정교육3) 성치호(경영4) 김다현(불교3) △부산=(불교1) △대구=이민주(간호1) △전주=박빈남(유아교육3) △대전충남=조재억(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3) △경기성남=이혜리(유아교육3) △ROTC=임해광(행정경찰공공학4)



▲ 장학회 박대신 이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장학회 민홍기 이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장학회 김오현 이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장학회 문선배 이사가 경주캠퍼스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고용규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장이 후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윤미정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이 수학교육과 후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 자광스님 본회 방문

모교 ‘로터스관’ 건립에 동문 협조 요청



▲ 이사장 자광스님(오른쪽)이 전영화 총동창회장(중앙), 정환민 사무총장과 환담했다.

모교 법인 이사장 자광(인철64)스님이 8월17일 오후 역대 이사장가운데 처음으로 총동창회를 방문해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정환민 사무총장, 사무처 임직원과 동창회를 찾은 몇몇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자광 스님은 사무처에 들어서며 “이사장이기도 하지만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진즉 찾아오지 못했다”며 “앞으로 방문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광스님은 전영화 총동창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총동창회가 무엇보다 지난 5월4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는 ‘로터스관’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사장과 총동창회장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다짐했다.

전영화 회장 “독립정신, 평화통일로 승화되길”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 열리다

만해 한용운스님을 기리는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이 만해스님 탄신일인 8월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개최됐다. 만해스님은 우리 총동창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독립운동가, 민족시인, 불교개혁론자로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날 통일문학축전은 만해 탄신 139주년과 광복 73주년을 맞아 만해스님 행장소개, 남북문인에게 고하는 통일염원메시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정환민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만해스님께서 갈망하셨던 자유와 평화, 독립정신이 평화통일로 승화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선진규(불교55) 만해통일문학축전 공동대회장을 비롯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 집행위원장 김용표 모교 명예교수, 총동창회 이재형 지도위원, 박대신 상임부회장, 신관호 사무국장 등 문인 동문 불교계 성북구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문에게 양주동박사 에세이 선물

총동창회(회장=전영화)는 8월1일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피서철에 동문들의 건강과 힐링을 기원하는 서신과 함께 문고본 도서 2권을 선물했다.

도서는 모교 은사였던 자칭 ‘국보’ 양주동 박사의 에세이집 <문주반생기>와 <무병장생 건강법>이었다.

이번에 책을 받아본 이태영(사학51) 고문은 “책은 지식과 마음의 양식인데 정말 고맙고 잘 읽겠다”는 전화를 해왔다.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있는 윤석순(정외71)부회장은 “멀리서 책을 받아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계속 좋은 기획으로 동창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세훈(전산72) 와싱턴동문회장도 카카오톡으로 “해외에 있는 동문들까지 쟁겨주어 고맙다. 새삼 동

국인의 자부심과 애교심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등 많은 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회 고문에 유인학 동문 추가

본회는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인 유인학(대학원법학86) 동문을 7월2일 고문으로 추가 추대했다. 유 고문은 13~14대 국회의원,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양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본회는 또 부회장에 윤성이(농경83, 모교 대학원장)동문을 5월2일자로, 이재도(경원17, 경북도의원) 정종식(경영84, 한국정보기술 대표이사) 김경민(경영86,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이상진(경영96, 대풍그린농원 대표)동문을 7월6일자로 각각 위촉했다.

장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저도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건학 112년동안 ‘동국’이라는 이름이 명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선배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입니다. “동국이 걸으면 역사가 된다”고 했듯이 저 역시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습니다.

〈수학과 이상현〉

저는 연극배우, 연출가, 교육자, 이론가 등의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연극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제 꿈에 날개를 달아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극학부 홍석준〉

저의 좌우명은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만의 새로운 무게 중심을 찾는다”입니다. 젊은 날의 도전들로 훗날 가치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응원에 감사하며 저 역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양송이〉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행정고시 겸찰사무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수험서나 특강비용에 보탬이 되어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에 꼭 합격하여 그 감사함을 사회와 후배에게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주도현〉

저희 학과 선배님께서 기부해주신 장학금이라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커다란 나무를 키우는 탄탄한 지반의 좋은 흙같은 사람이 되어 성실한 농부의 마음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과학과 강희원〉

광주전남동창회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선배님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 줄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선후배라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후배들에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전공 정원희〉

제 꿈은 현실에 지쳐 꿈을 좇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는 책을 쓰는 일입니다. 저의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신 선배님들의 정성과 격려를 기억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경영학과 금재환〉

저의 진로 목표는 대학원 졸업후 화학 연구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꿈을 이루면 나도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에게 꼭 기부하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릴레이 장학금으로 전통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 이수빈〉

누군가로 부터 은혜를 입으면, 항상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하곤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동국을 더 사랑하고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믿음직한 후배가 되겠습니다.

〈불교학과 이민식〉

국가와 사회,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내년이면 대학생이 3명이나 되는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제 꿈을 꼭 이뤄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이소희〉

장학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등록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도 언젠가 후배들에게 되물림해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깊은 뜻이 빛을 발하도록 훌륭한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 김종현〉

체육특기생 신분에서 벗어나 평범한 학생이 된 후로 이렇다 할 목표 설정이나 성장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었는데 장학금 수혜자가 되고보니 더욱 분발하여 성공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시 다짐합니다.

〈스포츠문화학과 최원제〉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따뜻한 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미래융합대 사회복지상담학과 설소희〉

홈커밍데이 “팔팔하게 모이자”

88학번 준비위원회 구성 … 10월13일 열려

88학번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부터 모교 중강당과 상록원 교직원 식당 등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를 앞두고 8월9일 학과 대표 등 88학번 동문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차관 준 동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학과별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지금까지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 내용들을 점검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몇차례 더 모임을 통해 △1988년 학내외 10대뉴스 사진 전 △88학번들의 추억영상 감상 △18학번 후배들을 위한 장학증서 전달 △환영 공연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의 행사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88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 임원

△위원장= 차권준(통계, 농심데이터시스템 부부장)

△부위원장= 전광호(일문, 알파칩스 대표이사) 장경수(법학, 금호생명) 이동규



▲ 88학번 홈커밍준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행정, 더트랜드 대표이사) 임치성(경제), 오케이시스템 대표이사) 김소령(농생)

△기획분과위원장= 최규진(영문, CLSA 코리아증권 준법감시인) 이준혁(일문, DK메디칼시스템 사장) 정명숙(철학)

△재무분과위원장= 이재혁(법학, 본사자 관리(주) 대표) 반경희(회계, Y&I솔루션 경영지도사) 장상윤(임학, 메트로라이프 생명보험)

△조직분과위원장= 정재학(일문, HNT 메디칼 대표이사) 이승락(정외, 삼성카드) 윤희동(전산, 지오스포츠 대표)

△행사분과위원장= 김철유(경영, GS칼텍스 차장) 송승현(임학, 동림기술단 이사) 최진석(연영, 연극배우)

△홍보분과위원장= 이만섭(인철, 산업경제신문 편집국장) 정명철(무역, 미육군 게리스험프리스 소방감독관) 조향미(회계)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는 지난 2009년 79학번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 째를 맞고 있다.

ROTC 홈커밍데이 & 체육대회



112 ROTC총동문회(회장 노향선, 화공78) 홈커밍데이 & 한마음 한마당체육 대회가 9월1일 오전 10시 모교 대운동장에서 1기 원용선 총명예회장부터 58기후 보생들까지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행사는 재학생 후보생 57 ·

58기생들의 환영대열을 통과, 입장한 뒤 개회식을 갖고 청팀(홀수 기수)과 백팀(짝수 기수)으로 나누어 축구, 족구, 단체 게임, 육놀이 등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노향선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국 FC엘리펀트축구단 창단식도 가졌다.

전북지부동창회 사무실 개소식



전북지부동창회(회장=장세균)는 6월 26일 오후 전주시 서노성동 성지빌딩 5층에 새로 마련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조직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사무실은 장세균 회장이 무상 제공했으며, 앞으로 대 · 소 회의와 상시 연

락처로 활용된다.

개소식에 이어 인근 백송회관에서 열린 정기 모임에는 역대 회장인 육기동(식공61, (주)팔마 회장) 윤영창(국문63, 춘향문화선양회장)동문과 문대성(정치56) 원로 동문, 장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동행산악회, 하늘공원서 야유회

동행산악회(회장 홍종표, 행대원94)는 7월8일 8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하늘공원과 난지캠핑장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역사와 코스 모스가 만개한 하늘공원 이곳저곳을 걸은뒤 난지캠핑장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패턴은 물론 생각과 가치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절대적 명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자 단지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직업이란 영어적 표현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는 job이나 occupation 이란 표현을 쓰지만, 공무원은 성직자와 같이 소명의식이 부여된 천직이란 뜻의 vocation이란 표현을 써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열정을 쏟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벽돌을 쌓

동국인칼럼

공무원인가, 공직자인가?

고 있는 벽돌공에게 물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벽돌공에게 똑같이 물었다. 그런데 그는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 겉으로는 평범한 벽돌쌓기 일자리도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들여 벽돌을 쌓고 있는 그분은 그 건축물이 완공되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부여된 일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란 표현을 쓰는 이유인 것이다. 기업에서 일하

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봉급을 받지만, 공직자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그 이상으로 국가의 현실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면 장래까지 내다보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늘 고뇌하며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는 공무원의 봉급은 단순히 일에 대한 대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다.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가치 추구형’과 ‘이익 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각자의 인생관에 따

라 다를 뿐이다. 공직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 등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 국가에 기여한다. 가치를 추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혹시라도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 중에 다수 국민의 이익인 공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적절한 때에 공직을 떠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면 국가와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박재신

공업경영학과 77
前 감사원 국장

동국인 파워 과시 ... 국회의원 2명 – 기초단체장 9명

6.13 전국선거, 광역의원 · 기초의원 등 포함 모두 82명 당선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서울 송파을 최재성 불교과 84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이상현 대학원 06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수 오규석 한의과 88 무소속	인천 연수구청장 고남석 철학과 77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 안병용 행정대학원 80 더불어민주당	충남 부여군수 박정현 정치외교과 82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시장 최기문 대학원 97 무소속	서울 구로구청장 이성 대학원 12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시장 이강덕 대학원 08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 행정대학원 97 더불어민주당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동문들의 선전으로 교위가 빛났다.

최재성(불교84) 동문은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서, 이상현((대학원06)동문은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12개 퀄위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인천연수구청장 고남석(철학77)동문을 비롯 9명의 당선자를 냈다.

광역시도의회 의원은 선출직에 서울 4명 · 경북 7명 등 20명이, 비례대표로 4명이 진출했다.

구시군의회 의원은 서울 4명 · 경기 20명 · 경북 8명 등 39명이 선출직으로, 8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014년 제6회 선거 당선자 12명보다 3명이 줄었다. 대신에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구시군의회 의원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축하회 조촐하게 열려



▲ 법인 이사장, 총장, 총동창회장 명의 축하패가 최재성 동문(왼쪽 두번째) 등 당선자에게 전달됐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와 검사장 승진 동문을 축하하는 모임이 7월16일(월)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총동창회(회장 전영화)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6.13 당선자, 학교법인 이사장 자광스님, 총장 보광스님, 총동창회 고문인 선진규(더불어민주당 고문) 동문, 검사장 승진 김후곤 동문을 비롯한 임원, 동공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광역단체 의원

- 서울(4) △신원철(대학원박사)=서대문구1(민주당) △신정호(경영03)=양천구1(민주당) △최기찬(경대원01)=금천구2(민주당) △성중기(대학원박사)=강남구1(한국당)
- 인천(1) △김병기(법학80)=부평구4(민주당)
- 울산(3) △고호근(사대원26기)=중구2(한국당) △전기옥(사대원1기)=동구2(한국당) △안수일(미술80)=남구1(한국당)
- 경기(4) △유광혁(영문95)=동두천시1(민주당) △남윤선(수학88)=고양시1(민주당) △김경근(교대원)=남양주시6(민주당) △정윤경(행대원08)=군포시1(민주당)
- 충남(1) △김득웅(사회83)=천안시1(민주당)
- 경북(7) △한창화(사대원33기)=포항시1(한국당) △김희수(사대원49기)=포항시2(한국당) △이재도(경주경대원 재학)=포항시7(민주당) △배진석(사대원51기)=경주시1(한국당) △박차양(사대원55기)=경주시2(한국당)

△최병준(사대원13기)=경주시3(한국당) △박승지(관광경영07)=경주시4(한국당) △김봉교(경주행정08)=구미시6(한국당) △김영진(교육84)=창원시3(민주당)

- 비례대표 서울(3) △김화숙(행대원90)=민주당 △한기영(대학원07)=민주당 △권영희(대학원약학)=민주당 경남(1) △이영실(가교81)=정의당

◆ 기초단체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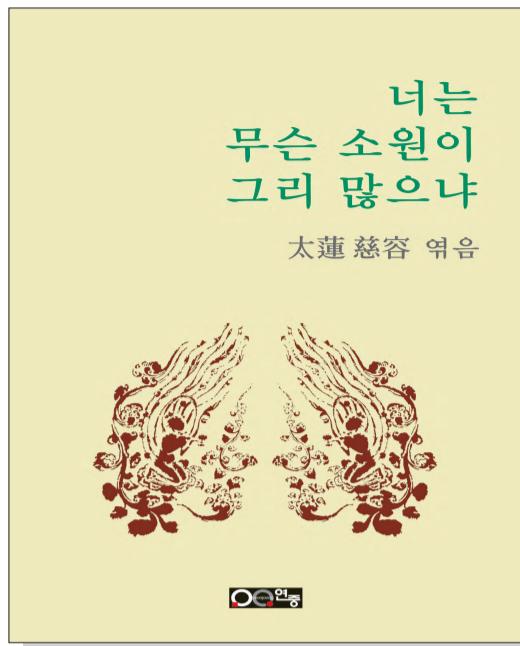
- 서울(4) △박영한(대학원재학)=중구가(한국당) △길기영(대학원재학)=중구다(한국당) △신동욱(무역82)=성동구나(한국당) △김영권(행대원재학)=강남구마(민주당)
- 대구(1) △차대식(사대원97)=북구다(한국당)
- 울산(2) △안대룡(경영97)=남구다(한국당) △방인섭(사대원)=남구라(한국당)
- 경기(20) △채명기(산공86)=수원시차(민주당) △신한호(대학원10)=성남시라(민주당) △고병용(대학원02)=성남시마(민주당) △박광순(경행)=성

남시자(한국당) △유재호(연극)=성남시하(민주당) △김정겸(대학원87)=의정부시나(민주당) △김필여(경대원)=안양시아(한국당) △유승영(정외84)=평택시마(민주당) △김효금(행대원)=고양시다(민주당) △김완규(불교89)=고양시차(한국당) △양훈(행대원재학)=고양시카(민주당) △이윤승(행대원재학)=고양시타(민주당) △김광수(행대원06)=구리시나(한국당) △신민철(행대원13)=남양주시나(민주당) △손배찬(행대원)=파주시가(민주당) △목진혁(대학원재학)=파주시다(민주당) △김희영(문예원09)=용인시바(한국당) △황진택(행대원95)=안성시가(민주당) △오강현(대학원)=김포시가(민주당) △전진선(경행78)=양평군나(무소속)

- 강원(1) △김명길(정보경영08)=속초시나(한국당)
- 충북(1) △안미선(행대원00)=괴산군가(무소속)
- 전북(1) △백영규(행대원08)=전주시가(민주당)
- 경북(8) △정종식(경영84)=포항시마

(민주당) △방진길(행정84)=포항시자(한국당) △정해종(경영05)=포항시자(한국당) △박정호(사대원48기)=포항시자(한국당) △박희정(대학원)=포항시타(민주당) △김수광(사대원59기)=경주시가(한국당) △서호대(사대원3기)=경주시나(무소속) △최덕규(법학86)=경주시라(한국당) △이만우(사대원9기)=경주시바(한국당) △이철우(사대원14기)=경주시바(한국당) △윤병길(행정11)=경주시사(한국당) △이락우(사대원07)=경주시사(한국당)

- 경남(1) △이현우(영문09중퇴)=밀양시라(민주당)
- 비례대표 서울(2) △이현미(행대원재학)=용산구(한국당) △이현숙(대학원박사)=서초구(한국당) 경기(2) △이병숙(수학87)=수원시(민주당) △박은주(국문85)=파주시(민주당) 충북(1) △강미숙(불대원)=단양군(민주당) 경북(2) △권경옥(사대원03)=포항시(한국당) △김순옥(사대원07)=경주시(한국당) 경남(1) △정영란(전자계산82)=남해군(한국당)



너는
무슨 소원이
그리 많으냐
太蓮 慈容 韓音
OO연정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108평 황금법당을 세울 때 수행의 울타리에서 함께 정진했던 불자들의 감동스토리

밤 · 낮을 가리지 않고 일념으로 ‘참나’를 참구한 불자들의 칠통(漆桶)에서 벗어나는 경험의 증언.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들어도 감동으로 남는 진실한 소리.
부처님과 대화하고 지장보살님이 선몽하고 현실에서 꿈같은 사실로 이뤄지는 성취감.

실로 믿기 어려운 영험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재의 책

연중 / 364쪽 / 값 16,000원
전국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태연 자용 스님 (한정기)

(불교대학원 91/93)

한자용 스님은 단기 4277(1944)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동진출가하고 고(故) 손경산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후 적조암 주지 등을 역임하였다. 시집 「별을 해는 마음으로」를 출간하였으며 현재 서울 은평구 녹번동 태연사 회주로 있다.



대한민국 어묵의 역사 삼진어묵

삼진
어묵
SINCE 1953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정진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삼진(三進)의 의미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명물, 삼진어묵 베이커리

삼진어묵 베이커리는 영도본점을 시작으로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 19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한데이. 다 사람 묵는 거 아이가”라는 창업주의 철학에 따라, 좋은 재료는 물론 높은 어묵 함량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에서는 매장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대통령 표창)
- ▶ 제 8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나눔부문 버금장 수상(부산광역시장상)
- ▶ 제 8회 부산고용대상 대상 수상(부산광역시장상)



전국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장 오정석 동문

“모교가 선도 기업인이 되도록 나를 키웠다”



**TV조선·동아일보 '2018 경영대상' 수상 겹경사
“나를 녹슬지 않게” 학구적 자세로 스스로 변화**

동원주류판매(주) 및 새한주류 대표이사 회장이자 1,200개 회원사가 가입해있는 (사)전국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 회장에 연임한 오정석 동문(농학과 72학번). 그는 회사의 혁신경영과 진취적 운영으로 지난 2월 TV조선이 선정한 '2018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상생경영 부문상을 받은 데 이어 3월에는 동아일보가 주최한 '2018공감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대상 분야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겹경사는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늘 연구하는 오 회장의 회사경영철학에서 나온 결실이다.

재학중 총동창회 장학금 큰 도움

오 회장은 지금까지 최고의 보람이자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은 동국대학교를 다닌 점과, 부인 김영옥 여사(61)를 만난 점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동국대 농학과 4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과장이신 김희곤 교수님께서 저의 학구열을 높이 사시면서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의 길을 가도록 연구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하이트맥주에서 학과 우수자에 대한 사원 채용 의뢰가 왔다면서 응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하이트맥주에 응시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직장이 되었고, 오늘 제가 매출 8조원에 달하는 전국 주류판매유통을 총 관장하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재학중 동창회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받았다. 충남 아산에서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뛰어난 부모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어떻게든 부모님 신세를 지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학교에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길은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다.

“재학중 당시 최재구 동창회장님(前 국회의원, 작고)으로부터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았고, 근로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모교 기숙사인 장충동 근로장학사 생활은 모교애와 동문 선후배간의 연대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장학생 기숙사는 신윤표 前 한남대 총장, 윤천영 前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희옥 前 동국대총장(현법재판관) 등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거쳐간 곳이어서 자긍심이 컸습니다. 선배님들의 영향으로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하이트맥주 근무 24년동안 그대로 발현됐다. 유통구조 혁신은 물론 생산성 향상,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선도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쉽 방향을 제시해 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 26세에 입사해 29세에 과장이 되고, 35세에 지점장으로 나갔다. 최연소 직책으로서 하이트맥주사에 남는 기록이다.

오 회장은 회사 재직중 부도난 주류 판매회사(주)동원을 인수하면서 독립했다. 주위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회사를 단기간에 정상화시켰다. 3년 후엔 유한회사 새한주류판매를 설립했다.

“회사 조직을 슬림화했습니다. 회사 재정은 허약한데 대표이사-부사장-전무-상무-부장의 피라미드식 조직체계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 그래서 수평적 조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표이사와 팀장이라는 단일 구조로 조직체계를 재편한 것이죠. 수십명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선진화입니다. 판매유통 과정에서 2인1차를 1인1차 시스템으로 전환해 책임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무인 물류시대로 전환했다. 전엔 창고에 재고가 5억 이상씩 쌓였지만 지금은 무인물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창고장이나 체크자가 없어도 재고가 단 10분이 틀리지 않는다. 그만큼 투명하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오 회장은 무차입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각 제조사들이 자기 회사 제품을 가져다 쓰도록 견인하면서 자금도 갖다 쓰라고 하지만 외면하고 있다. 그것이 나중에는 빚이 되고, 제조사와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시대 주류유통 선진화 주도

오 회장은 4차산업 시대에 주류판매 유통산업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4차 산업하면 무인자동차, 드론, 하이패스 등에서 보듯이 시스템이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망 역시 그런 변화를 거부할 수가 없지요. 제조사, 국세청, 회원사끼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투명경영과 체계적 관리운영 시스템과 데이터에 의한 관리를 해나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60~70년대 주류도매산업에 주먹들이 쥐락펴락하던 때가 있었다. 무자료에 탈세, 세무서와의 유착과 이로인한 부조리 등 전근대적 운영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런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은 옛말이 되었다. “주류도매업 1년 매출이 8조원에 이릅니다. 6,70년대의 원시적 운영체계로는 이 엄청난 볼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영의 선진화가 아니고는 해쳐나갈 수 없습니다. 유통선진화의 물류시스템 도입, 데이터 전산화와 연구와 포럼을 통한 새로운 유통구조의 개선, 홍보강화 등 변화를 이끌어야지요.”

주류판매도매회사 중 가장 견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동원주류판매와 유한회사 새한주류판매회사는 수원에 물류창고가 있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무실이 있다.

그는 주세 사무처리 규정, 신규면허제도,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도, 위스키실명제인 RFID 제도 도입 등을 계기로 고도의 회계처리와 전산망 확충, 과학적 시스템 운영 등 첨단경영기법을 선도적으로 이끌면서 회사를 반석에 올려놓았다. 인재양성을 통해 영업의 질을 높이고 고객관리, 판매 수금관리, 경영영관리 등 표준화된 매뉴얼을 짰다.

“35년동안 주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제조회사와 부

도난 도매회사 두 곳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판매차량 탑승과 공병 분류 및 신규업소 개척 등 영업활동을 직접 해보고 직원들을 교육 훈련시키면서 수시로 메모하고 느낀 점 등을 체계화해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펴낸 책이 ‘주류도매유통의 강자가 되는 길’을 비롯해 5권에 이른다. 연구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는 학구적인 자세가 주류도매업계의 혁신의 바탕이 되었다.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부인 김영옥 여사의 내조의 힘이 컸다. 현대그룹종합상사에 근무하던 김영옥씨는 오 회장의 뜻심과 성실성, 따뜻한 품성에 반해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다.

“앞서 말했지만 제 인생의 보람은 모교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점과 부도난 회사를 정상화시킨 점, 그리고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만 아내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응원했습니다. 부도난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빚 18억원을 몇 년만에 모두 정리했으니 아내의 눈물겨운 내조가 없었다면 힘들었겠지요”

오 회장은 이해 다툼이 있었던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 위원장을 맡아 원만한 품성을 토대로 말끔히 해결했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3연임)을 거쳐 중앙회장이 되었고, 지난해 재신임을 받아 40년만에 처음으로 중앙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중앙회장은 지역회장을 갖고 있어야 출마자격이 있다.

회장 연임에 성공한 것은 그의 후덕한 품성과 언제나 변화하려는 개혁정신의 힘이 크다. 그래서 그는 주류도매판매산업 개혁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각종 행사에 ‘동국대 처럼’ 소주 등 협찬

오 회장은 총동창회의 정기총회, 송년회, 골프회, 각종 단위 모임에 언제나 주류를 협찬해왔다. 송년회 때엔 주류에 ‘처음처럼’ 이 아닌 ‘동국대처럼’ 이란 라벨을 붙여 참석 동문들로부터 “‘동국처럼’이란 술이 시판되고 있느냐”고 물을 정도. 그만큼 그의 동국사랑은 크다.

오 회장의 좌우명은 “나를 녹슬지 않게”라고 말한다.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경쟁자로부터, 사회로부터 낙오된다는 것이다.

“후배들에게는 ‘연습은 천재를 만들고, 훈련은 기적을 만들고, 땀은 꿈을 이루고, 실천은 성공을 이룬다’는 말을 해주고 싶군요.”

그는 모교 농학과 출신인 전순표(53학번) (주)세스코 회장, 한우삼(62학번) (주)태양금속공업회장 등 성공한 선배들의 대를 잇는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모교는 물론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모교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했다.

이 계 흥 <홍보분과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진출

운영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동문



홍영표 동문



노웅래 동문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홍영표(철학78) 동문은 운영위원장에, 노웅래(언론정보대학원99) 동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전체 상임위원회는 모

두 18개이다.

홍영표(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 대변인,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장을 거쳐, 지난 5월11일 20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혔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3선) 위원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취임 · 영전

한국수도시설관리협회 초대 회장
박형구(69경영) 동문이 8월7일 사단법인 한국수도시설관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이계방(법학72) 동문이 6월18일 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해태상사 독일 및 영국법인 사장과 엘리코파워(주) 대표 이사를 역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재경(법학75) 동문이 4월25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최강주(경행82) 동문이 7월 1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교정본부장은 교도관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전국 1만6천여명의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이끌고 있다.

광주 서부소방서장

이성연(경행82) 동문이 7월2일 광주 서부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6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해 광주남부소방서장, 광주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 감사위원

황찬익(국문83) 동문이 6월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남북경협기업 비상 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KGRP 초대 회장

차연신(연영85, 와이에스PMC 대표이사) 동문이 7월24일 강남 아르누보시티호텔 3층에서 열린 KGRP(Korea Global Realty Partners)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경기도 소통기획관

곽윤석(사회85) 동문이 8월17일 경기도 소통기획관에 임명됐다. 2011년 국회 정책연구 위원을 거쳐 여주대학교 특임교수로 있다.

금융결제원 본부장

장건홍(경제86) 동문이 7월17일 금융결제원 본부장에 선임했다. 금융결제원 입사 후 비서실장, e사업실장,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철학88) 동문이 6월1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재학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장,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종로환경회의 운영위원, 민주당중앙당부대변인을 지냈다. 저서로 ‘하루 첫생각’을 냈다.

전순표 고문 ‘자랑스런 한국인 상’

미주동포후원재단 제정



전순표(53농학, 세스코 회장) 본회 고문이 미주동포후원재단이 시상하는 제1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상금은 1만달러. 미주동포후원재단은 이민희(정치52) 본회 고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2006년부터 이 상을 제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훌륭한 한국인에게 수여하는 상훈 중 정부나 민간기업, 대학 등이 아닌

독립적인 비영리단체가 주는 상으로는 유일하며 8월8일 LA가든스위트호텔에서 시상이 있었다.

전 회장은 금강장학회, 동국장학회 등을 통해서 2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 금탑산업훈장과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LA동문회에서 축하 오찬

한편 남가주 동문회는 8월11일 용수산에서 총동창회 전순표 고문 축하 오찬회를 열었다.

수상

제11회 동국청우상



청우최재구회장추모사업회는 8월23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일동 명의로 총동창회 고문 류주형(농학53) 동문에게 제11회 동국청우상을 수여했다. 부상은 순금 행운의 열쇠 1냥이다. 류 고문은 21~23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2000년부터 청우추모사업회장으로 봉사해오고 있다.

동국청우상은 8대~12대 총동창회장과 국회 경제과학위원장(4선), 대한불교신도회장, 몬드리올올림픽선수단장을 지낸 최재구 선생(1929~1998)의 ‘동국사랑’ 유훈을 기리기 위해 2000년 추모사업회를 발족하여 2002년 제정된 상이다.

4.19혁명공로자회 대상



김성재(정치58) 본회 고문이 6월2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정부포상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번 대상은 58년 만에 시상하는 것으로 그 동안 대상 수상자가 없어 시상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인물대상 연극영화부문



정미숙(연영84, 가톨릭관광대 교수)동문이 7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연극영화학부문상을 수상했다.

30여년 동안 방송·연극·영화 분야를 아우르면서 활동하며 문화예술 응·복합콘텐츠 발굴에 앞장서고 학술적 연구를 지속해 왔다.

총동창회장 등 동국인 '송파 을' 출동

최재성 의원 4선 … 민도 높은 강남권서 당선



▲ 6.13 선거시 최재성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동문 선후배들이 엄지척을 하며 당선을 응원했다.

최재성(불교84) 동문이 '미니 총선'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규모가 커진 6.13 재·보선 국회의원선거(서울 송파을)에서 당선, 4선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향후 활약이 기대를 모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16일 열린 6.13 당선자 축하모임에서 "우리 동국가족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실감했다"면서 "반드시 좋은 의정활동, 좋은 정치로 보답할테니 지켜봐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의원은 "혁신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20대 국회에서 정당개혁을 통해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한다. 그 일환으로 9월1일에는 지역구인 송파을에서 첫 당원총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100년 정

당을 위한 실천'을 선언했다.

주요 골자는 △당원총회 위상 설정 △당원자치회 활성화 △당원직접민주 4권(토론, 소환, 발안, 투표요구권) △각종 위원회 신설 등이다. 송파을은 당원총회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최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 방향은 구조 혁신을 통한 시스템 정당의 정착이다. 세대 혁신과 함께 당의 구조 혁신은 그가 구상하는 혁신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최 의원은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생 및 주요법안 국민 강제명령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 승진



김 후곤 (법학 84) 동문이 6월22 일자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부임했다.

사법시험 35회(사법연수원 25기) 검사로 특수부 경력이 많아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수원지검 시절 다원그룹 회장 로비 사건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때는 동양그룹 사건, 대한 배구협회 사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서종예)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아 '검찰의 입'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두 동문 승진

인사비서관 김봉준 – 문화비서관 남요원



김봉준 동문



남요원 동문

8월16일 발표된 청와대 인사에서 김봉준(경영86) 동문이 청와대 인사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인사비서관으로, 남요원(81철학) 동문은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문화비서관으로 각각 내부 승진했다.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과 부대변인을 지냈다.

남 비서관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경찰행정학과' 독보적 위상 확인

경찰청장 등 고위직 간부 다수 진출

지난 7월 하순 단행된 경찰청 인사에서 민갑룡 동문이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등 동문다수가 고위직 간부로 진출해 모교 경찰행정학과의 위력을 재확인했다.

제21대 경찰청장에 민갑룡 동문



민갑룡(대학원 박사수료) 동문이 7월24일 15만 경찰의 총수인 제21대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경찰대학 4기로 모교에서 2016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제1부장, 인천경찰청 제1부장, 서울경찰청 차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에서는 기획통으로 근무하며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왔다.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 동문



조현배(대학원박사) 동문이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6월25일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간부후보 35기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정보국장 등 정보 분야에서 오래 몸담았다.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7년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가 이번에 해양경찰의 총책임자가 됐다.

치안감에 동문 4명 승진



최해영 동문



이은정 동문



최관호 동문

7월26일 단행된 경찰청 인사에서 최해영(경행79) 동문과 이은정(경행84) 동문, 최관호(경행84) 동문, 김병구(대학원 박사수료) 동문 등 4명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은 경찰 내에서 서열 세 번째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을 제외한 13개 지방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에 해당한다. 이번 승진으로 최해영 동문은 경찰청 교통국장, 이은정 동문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관호 동문은 전남지방경찰청장, 김병구 동문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영전했다.

치안감 이상로(경행82) 동문은 대전지방경찰청장, 이상철(행원98) 동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강성복(경행77) 동문은 경찰청 경무담당관실로 발령되었다. 한편 경무관인 전창학(경행79) 동문은 경남지방경찰청 제2부장, 진정무(대학원 박사수료) 동문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경급 동문 일부 인사이동

- △ 이호영(경행85)=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법제팀장)
- △ 김병기(경행88)=서울경찰청 202경비대장
- △ 김문영(경행90)=경찰청 치안상황실장
- △ 이관형(경행91)=경찰청 치안상황실장
- △ 임실기(경행85)=인천경찰청 외사과장
- △ 황석현(경행85)=광주경찰청 경무과장
- △ 김범상(경행88)=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 김기현(경행92)=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
- △ 박영수(전자83)=경기북부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 김택수(경행87)=강원경찰청 정보과장
- △ 박재현(경행92)=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 김희중(경행85)=강원 춘천경찰서장
- △ 박봉규(경행83)=충북 음성경찰서장
- △ 함영욱(경행87)=충남경찰청 수사과장
- △ 이동민(경행82)=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 박주현(경행89)=전북 임실경찰서장
- △ 오종익(경행86)=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 박준성(경행88)=전남 장흥경찰서장
- △ 박종삼(경행87)=제주경찰청 해양경비단장
- △ 임병숙(역사교육8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 김숙진(행원00)=경찰청 여성대상 범죄근절 추진 부단장
- △ 박근주(행원99)=서울경찰청 보안2과장
- △ 장동찬(행원)=충남경찰청 보안과장

가을학기 학위 수여식 거행

김진문 · 황경환 동문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서울캠퍼스 총 1,661명 졸업

모교 2018 가을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는 8월23일(목), 경주캠퍼스는 8월24일(금) 각각 캠퍼스별로 거행되었다.

23일 중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27명, 석사 546명, 박사 86명이 배출됐다. 또 신성 약품(주) 회장 김진문(경영64, 총동창회 부회장) 동문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부산 기장군 영일암 주지 현응스님에게는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성적우수상은 △문근호(영어영문) △박선영(경영학) 졸업생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박민우(수학교육) △신예린(법학) △허 열(경영학) △박유성(영화영상) △안영찬(대학원 박사) 등 5명이 받았다.

한태식(보광)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그동안 동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간직하고 졸업 후에도 여러분들이 모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자광 스님은 “여러분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의 진리인 인연법을 배웠다”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사람과의 만남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성공하기를 조석으로 기도 하겠다”고 치하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100년 후에도 서울 남산에 우뚝 서있을 대학은 우리 모교 뿐이다. 그 자부심으로 어느 분야, 어떤 곳에서 종사하시던 간에 프로 정신을 발휘해 30만 동문과 함께 모교를 명문으로 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주캠퍼스 1,050명에게 학위

8월24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28명, 석사 104명, 박사 2명, 최고위(CEO) ALC 연구과정 수료자 20명 등이 각각 해당 학위와 수료증을 받았다. (주) 진양유조선 회장 황경환(교육대학원87, 총동창회 부회장)동문에게는 명예철학박사학위가 수여됐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정분남(불교문화대학원) 졸업생이 이사장 특별공로패를 받았으며 △배호식(불교문화대학원) △윤경애(경영대학원) △성정철(사회과학대학원) 졸업생은 총장 공로패를 받았다. 또 △김정기(불교문화대학원) △김보성(경영대학원) △이은희(사회과학대학원) 졸업생에게는 각각 캠퍼스총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은 환송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올바른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며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고 학교에서 배운 팔정도 정신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예박사학위 받은 동문 프로필

김진문 명예경영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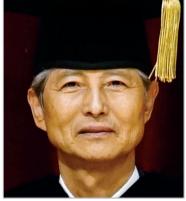
김진문(경영64/경영대학원90) 동문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신으로 1985년 신성약품(주)을 창립, 현재 의약품 유통 및 통합 의료 물자공급 업계의 선두주자로 미래가치 창출과 국민건강복지 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30년전 한국근육병재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이사장으로서 국내 1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근육병환자의 재활모임 활성화에 헌신해오고 있다.

1994년 4월부터 모교 발전을 위해 김진문장학, 경영학과장학 등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교지매입기금, 전학100주년발전기금,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로터스관건립기금, 포교활동기금 등 2018년 1월까지 약 12억3천만원의 다양한 발전기금 후원하였다.

모교 겸임교수, 경영대학원 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재)동국장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황경환 명예철학박사



황경환(교육대학원87, (주)진양유조선 회장) 동문은 1977년부터 40년 동안 (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및 연구위원을 역임하면서 한국불교연구원이 추진하는 불교발전사업, 초기불전연구원 불사건립 및 울산불교방송 개국, 빼알리 한글사전편찬사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불교의 사회적 공헌에 기여해 왔다.

총동창회 부회장 및 교육대학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들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모교의 시설확충 및 인프라기금과 인재양성 장학기금, 경주 선센터건립기금 등을 기부하여 교육연구환경 개선 및 후학양성에 솔선수범했다.

LA캠퍼스 후원기금 5억원 모금

“세계화 거점대학으로 도약” 다짐



▲ DULA후원의 밤 행사에 불교계 · 동문 등이 참석했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7월11일(수)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동국대 로스엔젤레스(DULA) 후원의 밤'을 열고 5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사장 자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DULA가 한국과 한국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불자에게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겠다”며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미국과 전 세계에 넘쳐나도록 서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보광스님은 환영사에서 “DULA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DULA가 한국 한의학의 우수함을 알리고 DULA가 동국대학교의 세계화 거

점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덕 DULA 총장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한국식 한의학 치료구현을 통한 불교 전파 ▲미국 내 한국 한의학 정착 등 DULA 비전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광스님이 2천만원을 희사하는 등 37명이 총 4억9700만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향후 이 기부금을 DULA 교육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DULA는 1979년 설립된 후 1997년 학교법인 동국대가 인수했다. 현재 한국불교 정신이 깃든 미국 명문 한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 경주 교원 9명 퇴임

모교에서 후진양성과 대학발전에 헌신해온 교수 9명이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캠퍼스별로는 서울캠퍼스 7명, 경주캠퍼스 2명이다. 퇴직 교수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교 명예교수로 위촉된다.

이번에 퇴임한 서울캠퍼스 교원은 △대학원 미술사학과 정우택(2003.3.1. 부임, 박물관장 역임) △불교학부 장애순(1995.3.1. 부임, 불교대학장 역임) △일본학과 정수현(1984.3.1. 부임, 교수학습

개발센터장 역임) △물리반도체과학부 남궁숙(1984.9.1. 부임, 자연과학연구원장 역임) △회계학과 한진수(1986.9.1. 부임, 부총장 역임) △경영정보학과 이원부(1989.3.1. 부임, 경영대학장 역임) △나노정보과학기술원 양자기능반도체연구소 손윤(2008.3.1. 부임) 교수 등이다.

경주캠퍼스는 △행정경찰공공학과 우성기(1989.9.1. 부임, 사회대학장 역임) △국어국문학과 김동협(1990.3.1. 부임, 인문대학장 역임) 교수가 퇴임했다.

영상뉴스채널 ‘DUTV’ 개국

모교는 학내 영상뉴스 채널 ‘DUTV’를 6월12일 개국했다.

DUTV(Dongguk University TV)는 대학홍보실 소속으로 7명의 재학생 기자단으로 구성된 제작진이 대학의 주요 정책과 성과 등 다양한 뉴스를 전달한다.

재학생 기자단은 지난 5월 총 7명이 선발됐다. DUTV 뉴스는 격주 단위로 제작돼 교내 미디어보드, 홈페이지, 유튜브 등 각종 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제작 효율이 높아진 후에

는 보다 더 신속한 뉴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개국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모토로 대학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방송은 지난해 조성한 교내 혜화관 스튜디오의 최신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언론계에 진출할 꿈을 가진 재학생들에게 실제로 뉴스 제작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공계 평가 3년 연속 종합 11위

전국 대학 취업률 4위 등 강한 대학 자리매김



모교가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2018 이공계대학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11위에 올랐다. 특히 정성 평가 점수를 제외한 정량평가에서 서울대·고려대 등을 제치고 8위에 올랐다.

공학계열 부문 평가에서는 11위를 기록했고, 취업률 4위·창업학생비율 6위·학생창업지원액 8위·창업전담인력수 6위·유지취업률 9위 등 취·창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의수 기획부총장은 "최근 수년간 이공계 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원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며 "이밖에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창업학 연계전공, 창업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학생 창업동아리를 육성해 인적,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이공계 대학 평가는 교육·연구의 질과 함께 산학협동 및 기술 실용화, 창업·취업지원, 기업체 대표 등의 평판도 조사 등을 종합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있다.

QS세계대학평가 '국내 13위'

세계순위 39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지난 6월7일 발표된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는 세계 순위 432위, 국내 13위에 올랐다.

이는 2013년부터 QS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한 아래 가장 높은 성적이다. 평가 참여 첫 해인 2013년 601~650위를 기록했던 모교는 지난해 471위까지 지속적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432위로 39계단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세계대학순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순위도 2013년 20위, 2014년 18위, 2015·2016년 14위, 2017·2018년 13위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4,84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40%)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당 학생비율(20%) △기업계 평판

(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을 평가했다. 평가는 본교와 분교를 통합해 단일캠퍼스로 인정하는 QS의 평가방식에 따라 서울과 경주 캠퍼스의 지표를 합산한 수치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모교는 교수당 학생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각각 24계단, 51계단 상승했다. 연구경쟁력이 높은 교원초빙, 유학생 집중유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QS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2009년부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 QS세계대학평가 1위는 MIT, 2위는 스탠퍼드대, 3위는 하버드대가 차지했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과 MOU 체결

한보광 총장은 7월25일 몽골생명과학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몽골생명과학대와 대학전체 및 학생교류협정, 복수학위 프로그램, 사막화 방지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 전반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광 총장 등은 7월23일부터 27일

까지 한국과 몽골 간 학술교류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는 일환으로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국립대 △몽골생명과학대 등을 방문했다.

또 몽골국립대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등의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2주기 평가 통과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자율개선대학 선정

모교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모교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I로 구분하여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323교(일반대학 187

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가 선정됐다. 이밖에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올해 입시 수시 비중 71.6%

모교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71.6%에 해당하는 2148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중 학생부종합 전형은 1526명으로,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0.9%이다. 모집전형별로 △학생부종합(Do Dream 전형, 학교장추천인재 전형, 불교추천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논술우수자 △실

기 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종합 전형과 실기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논술우수자 전형뿐이다.

또 수험생을 위한 배려의 일환으로 논술고사 및 학생부종합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를 수능시험 이후에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야구부 이건열 감독 100승 축하연



모교 야구 감독 이건열(경행82) 동문의 감사인사 목소리는 다소 떨렸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의 100승 기록은 선수들, 82학번 동기들, 학부모, 학교 당국과 동창회 선수 배님들이 합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명예롭게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건열 동문의 대학단일팀 감독 최단기간 100승 달성을 축하하는 모임이 82학번동문회와 야구후원회 주최로 한보광 모교 총장,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상임부회장 및 감사, 82학번 동문, 선수, 학부모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30일 저녁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축하 열기가 넘쳐났다.

본회 상임부회장 차연신(연영85)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82학번야구후원회 홍보이사인 김천석(경제82) 동문의 '왜 대단한가'라는 실적 소개에 이어 '동82 야구후원회' 김영호(경영82) 회장 인사말, 총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김종필 82

학번동문회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건열 감독에게 총장 보광스님은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순금 행운의 열쇠(1냥)를, 82학번 동창회 일동은 '사랑하는 친구 이건열 감독'을 기리는 기념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특히 전영화 회장은 100승 달성이 있기까지 호흡을 함께해온 야구부 코치 최건용(전선91) 동문 등 코치진 3명에게도 금일봉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이건열 감독이 '동82 야구후원회' 사무총장으로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최광수(화공82) 동문에게 등번호 8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깜짝 선물해 박수가 쏟아졌다.

이건열 감독의 5년 3개월간 기록은 100승 33패(승률 7할대)이며, 6월30일 현재 102승을 이어가고 있다.

모교 야구부는 1946년 창단되어 2018년 현재 모두 20차례 우승을 안았다. 동국야구의 신바람을 불러온 동대문 야구장시절인 80년대 6회, 90년대 2회, 2000년대 4회, 2013년 이건열 감독 부임이후 8회 등이다. 대학야구 우승 기록상으로는 1위 고려대(21회)에 이어 동국대가 2위가 되며 3위 한양대(19회), 4위 연세대(15회) 순이다.

한편 총동창회 한우삼(농학83) 고문은 특별격려금을 전달하고 모교 야구부와 이건열 감독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8년 5월 30일 ~ 8월 31일 접수분 〉

장학금

발전기금

고문분담금



홍파스님 (63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1,000만원



고용규 (70정외)
동우들 대표이사
200만원



윤미정 (81수교)
MJ잉글리쉬 대표이사
200만원



윤병관 (82화공)
이지상사 대표이사
300만원



이상진 (96경영)
대풍그린농원 대표
100만원



박종윤 (56경제)
세창/한국드라이버링 회장
100만원



이석용 (54정치)
前 대한손해보험협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공기태 (79화공)
세옹트레이딩 대표



김경민 (86경영)
KB손해보험 김경민대리점 대표



김세준 (71화학)
제일모피 대표이사



김진익 (73경영)
前 KOTRA 상임감사



김환배 (68연료공학)
GS칼텍스 지디에너지 대표이사



본각스님 (72철학)
금륜사



성월스님 (92불대원)
용주사 주지



성해스님 (88교대원)
삼각사 주지



위재춘 (64경영)
여성종합나무 대표



윤재민 (81사학)
종합출판 범우사 대표



이상민 (68행대원)
前 국회의원 (10,12대)



이상진 (96경영)
대풍그린농원 대표



이상현 (54경제)
상경물산 회장



이재도 (경대원)
경상북도의원



임규영 (68경제)
현대빌딩 대표



정광훈 (65상학)
뉴-축복웨딩홀 대표



정종식 (84경영)
포항시의원



조충미 (81교육)
에이서유학원 원장



채정욱 (86의학)
채움병원 이사장/병원장



황경환 (87교대원)
진양유조선 회장



홍춘의 (02불교)
태평양관광호텔 회장

부회장

조규영 (64경제)

홍진수 (98경대원)

신형철 (77체교)

평생회비 (50만원)

국태영 (95전기)

김상구 (74경영)

김인범 (85법학)

김영순 (65화학) 월10

상임이사 (20만원)

황동휘 (79행정)

화랑스님 (74승가)

구광모 (74행정)

권순일 (62국문)

김상민 (92응생)

김종덕 (66경영)

이경석 (67도공) 30

고천석 (76정외)

이사 (10만원)

이영길 (64응생)

황수경 (00대학원)

김기우 (90법학)

김성광 (65상학)

김종호 (61대학원)

차문희 (72정외) 30

김래동 (80행대원)

이용석 (73정외)

이용기 (64농경)

김민지 (84경대원)

김덕조 (85무역)

김신복 (86물리)

김진방 (64경제)

김봉주 (76행대원)

박상관 (79행정)

김학수 (65경행)

임수현 (86사회)

강민지 (84경대원)

김덕조 (85무역)

김신복 (86물리)

김진방 (64경제)

박수철 (53임학)

손문영 (69토목)

동훈스님 (94불대원) 20

임 준 (81체교)

강부전 (63상학)

김돈석 (58법학)

김양태 (85무역)

김철수 (73경제)

오만식 (90연대원)

안명근 (65농학)

민병권 (76정외)

장수정 (63임학)

강수창 (63상학)

김동식 (84법학)

김영호 (99경대원)

김택남 (08경영)

이진호 (64농경)

유국현 (79화학)

박대은 (97사대원)

정시환 (87법학)

강종필 (81교육)

김만연 (55정치)

김용옥 (84경제)

김한진 (64상학)

인종식 (53경제)

윤두옥 (59생물)

박명준 (71건축)

조남현 (73무역)

강중식 (57수학)

김면수 (79행정)

김유련 (71경영)

김현신 (91교대원)

정동귀 (57정치)

이영안 (65경제)

박상국 (69불교)

최병곤 (84경대원)

고준기 (85통계)

김문광 (85회계)

김윤수 (99경영)

김현팔 (64국문)

정재기 (64정외)

이창수 (80회계)

박재구 (76식공)

홍성권 (77경행)

공희준 (88정외)

김문재 (84국문)

김의창 (79수학)

김형섭 (65경행)

정진영 (58경제)

진각화봉스님 (88한의)

박태선 (82농학)

홍훈유 (65농학)

구봉희 (64정외)

김상걸 (92사대원)

김익상 (61법학)

김형엽 (82경영)

연회비 (3만원)

김낙현 (82체교)

김남수 (79전자)

김소연 (99연극)

김중대 (75경대원)

김준배 (문학)

권순일 (62국문)

김상민 (92응생)

김

김호성 (95경영)	법용사	오정일 (74행대원)	이점원 (72미술)	조호철 (89언대원)	최효식 (64사학)	홍성표 (00사대원)	이진혁 (75화학)	월5
김홍렬 (59경영)	변승현 (00경대원)	옥건호 (67식공)	이정기 (86행대원)	중암사	축서사	홍승하 (70농학)	누계 : 290만원	
김홍철 (60경제)	변유근 (67법학)	왕수일 (83무역)	이종만 (05국제통상)	지산스님 (88교대원)	탁병온 (76공경)	홍영자 (64국문)	이성훈 (97정보)	월2
김후석 (72경행)	보덕사	용천사	이종연 (85농경)	지용진 (82경행)	태고사	홍정 (01행정)	누계 : 4만원	
김희자 (89미술)	보문사	우정스님 (96불대원)	이종혁 (69경제)	지장사	태을암	홍제스님 (84선학)		
노수길 (65경영)	불사리탑사	유도상 (82경행)	이주영 (80경대원)	차경연 (93행대원)	하림스님 (88선학)	홍현명 (75전자)	발전기금	
대용스님 (88선학)	불영사	유두상 (70경제)	이지혁 (96컴퓨터)	천수호 (83인철)	허종대 (55정치)	황규철 (80회계)		
동훈스님 (94불대원)	사현스님 (02불대원)	유상갑 (64법학)	이창근 (72체교)	천은사	한영호 (57법학)	황선구 (66통계)	묘주스님 (80불교)	20
류범열 (82체교)	서봉사	유영근 (90경대원)	이칠규 (85무역)	천주암	한진수 (86미술)	황수경 (00대학원)	김종필 (82행정)	월3
마하사	서석구 (56법학)	유한열 (71경제)	이택수 (66경제)	철은스님 (86교대원)	한진희 (78무역)	황우열 (71인철)	누계 : 96만원	
묘주스님 (80불교)	서윤하 (82법학)	육문균 (96경제)	이한구 (77건축)	청안사	현우스님 (00선학)	동명사	월2	
문송국 (81회계)	서창식 (60상학)	윤수정 (64경제)	인경환 (78행대원)	최본식 (59상학)	현웅기 (81행정)	누계 : 108만원		
문수사	석련사	윤정환 (77화공)	임규영 (88회계)	최봉석 (92정외)	혜광스님 (06불대원)			
민병천 (82공경)	선덕사	윤찬희 (78화공)	임인규 (78승가)	최수용 (85전산)	혜안스님 (96선학)	우희명 (70건축)	월30	
민상기 (81통계)	손영도 (84경영) 9	윤혜원 (15교대원)	임재천 (74영문)	최인택 (84건축)	혜은사	누계 : 180만원		
박광태 (61국문)	송광사	이관수 (78경영)	장영권 (47경제)					
박덕준 (88경영)	송림사	이돈희 (65상학)	장종근 (03행대원)					
박성원 (97북한)	송부용 (78농경)	이동식 (83무역)	장희범 (75식공)					
박성일 (04언대원)	송재관 (64행정)	이동우 (56법학)	전수식 (56법학)					
박영걸 (98불대원)	수도사	이득현 (72국교)	정경환 (86무역)					
박용철 (62식공)	신영철 (57국문)	이범찬 (82행대원)	정상훈 (96법학)					
박윤규 (84경대원)	신영태 (81무역)	이병주 (78행정)	정선호 (06경대원)					
박익주 (59정치)	신용준 (60국문)	이병직 (71통계)	정수스님 (03불대원)					
박재명 (90경영)	신혜주 (72사교)	이상봉 (83산공)	정연웅 (06건축)					
박재신 (77공경)	심경용 (67법학)	이상윤 (71건축)	정영자 (03사대원)					
박점식 (67정외)	안병조 (63경제)	이선래 (94행대원)	정용일 (70법학)					
박정민 (79불교미술)	안심사	이여진 (69화학)	정운영 (81전산)					
박준일 (95회계)	안심사	이영규 (73수학)	정창시 (80회계)					
박치형 (80수학)	안현동 (87경대원)	이영찬 (72농학)	정태휘 (85회계)					
박태강 (64경영)	약산선원	이용국 (76국사교육)	정택열 (83화공)					
박형배 (85전산)	양영삼 (63경제)	이원섭 (70공경)	정홍락 (07대학원)					
박희찬 (97건축)	연등사	이윤진 (86지교)	조남풍 (88행대원)					
배주환 (77전기)	염동훈 (58법학)	이의옹 (95경대원)	조용범 (85경제)					
백길웅 (85인철)	영화사	이장희 (61농학)	조일권 (55법학)					
백승권 (85국문)	오건석 (64경영)	이재진 (69경제)	조준수 (87경대원)					
백운성 (97행대원)	오성운 (83정외)	이재형 (79임학)	조형규 (65임학)					

정성을 모으면 동국 미래가 바뀝니다

총동창회는 30만 동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동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임원회비 및 동창회비

-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년회비 3만원

● 납부방법

- 송금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733-0303)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온라인 판매 1위!

자동차, 사무실, 헬스장, 골프장, 작업장
언제 어디에서나 투힘 조인트

WORLD'S FIRST ANYWHERE MOUNT!

다용도 자석거치대



조인트

송풍구 자석거치대



쿼드폴 미니

송풍구 클립거치대



바이트크래들 미니










*기업 판촉용 로고인쇄 예시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 본 사 |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0, 유상빌딩 |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辯護士 / 辩理士

吳 淳 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321-4066 Fax.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ISO 9001 인증

대자기업주식회사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人)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

도심불교의 신모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다양성영화 부문 박스오피스 1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흥행 분기점인 1만명 돌파!

영화 '무문관' 상영 중

명실공히 세계적 도량으로 우뚝 선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는
불교인의 자부심이요, 한국불교의 비전입니다.

교 육 참좋은이서중 · 고등학교, 참좋은 어린이집 · 유치원
네팔 카트만두 고카르나스쿨, 룸비니 메타스쿨, 포카라 보육원
라오스 빙비엥 방과후학교

의료 참좋은 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 참좋은 기억학교
참좋은 치매주간보호센터

복지 참좋은노인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참좋은우리집
참좋은지역아동센터, NGO B.U.D

문화 도서출판 좋은인연, 월간법보시,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국내도량 대구큰절, 김포 무일선원 무문관 & 세계명상센터,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포항도량, 서울도량, 팔공산도량, 영천도량, 청도도량

해외도량 미국 뉴욕도량, 중국 칭다오도량, 호주 시드니 & 시티분원
이집트 카이로분원, 이스라엘분원, 네팔 룸비니 도량, 네팔 포카라 분원

기타 상조서비스, 극락납골봉안당, coffee CHARM(사회적기업)
청도명상센터, 참좋은신문사(인터넷)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영대병원 네거리,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소리의 名器

경주오르골소리박물관

- 경북신문 명예회장
- 법무부 교정위원
- 피플투피플 세계본부 운영위원
- 초기불전 선임 연구원

대표이사 / 회장
황 경 환

(주)경주아이씨에스 경상북도 경주시 서라벌대로 420
Tel. 054-744-8211~2 / Fax. 054-744-8213

(주)진양유조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대영빌딩 2층
Tel. 052-269-3071~2 / Fax. 052-261-5556

Mobile. 010-3831-2669 / E-mail. khbeacon21@chol.com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기업

Samkoo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구 자 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타워 동관 6F
대표전화 : 02.828.3939
<http://www.samkoo.com>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 출현한
평화와 행운의 길조
'파랑새(관음조)'

수락산 도안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새해 해맞이 특별기도 : 양력 1월 1일~3일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3일
- 약사기도 및 방생 : 매월 음력 8일
- 지장기도 : 매월 음력 15일~18일
- 관음기도 : 매월 음력 24일
- 108평화보궁기도 : 매월 양력 18일

대한불교조계종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9
전화: 02-936-5936, 931-5557 팩스: 02-935-5936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 중 식
(경제학과 53/57)

dongguk
UNIVERSITY

www.guro.go.kr

Guro 구로구

구로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Fax. (02) 860-3010
Mobile. 010-4107-0945 E-mail. leesung@guro.go.kr

www.straw.co.kr

業界 47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 강남 중심지 14층 사옥건물 보유.
- 다년간의 자체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완벽한 자체 자동화시스템 구비.
- PP, PS, OPS, PET 등 재질에 관계없이 성형, 인쇄 할수 있는 국내최대 설비시설 보유.

상경물산주식회사
ISO9001 품질보증체제 인증업체

대표이사 : 李相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14F TEL : 02-557-4757 FAX : 02-556-3866

참나를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운보 큰스님의 가르침과
세계적인 명상센터의 체계적인 운영방법을
결합한 원법사 명상 프로그램

▶ 이브닝(하루 1시간)

▶ 1박2일, 3박4일

▶ 리트릿(6박7일)

▶ 정좌명상, 큰스님 법문
포행, 주지스님과의 차담



행복도량원법사 T.(054) 244-01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길 65번길 9